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개최일시	2024. 4. 22(월) 18:00~21:00	회의장소	본관 대회의실																								
참석자 (13명)	권하은(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도재형(기획처장), 박서림(학부 총학생회장), 박예림(사범대학 공동대표), 박지혜(간호대학 공동대표), 반지민(학부 부총학생회장), 백은미(학생처장), 왕혜정(관리처장), 윤정원(한영회계법인), 이명휘(교무처장), 이주연(예산팀장), 전현주(대학원 학생회장), 정덕유(총무처장)																										
불참자 (0명)																											
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li> <li>2. 2023학년도 기금용도 변경(안) 심의 및 의결</li> <li>3. 2023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li> <li>4. 2024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 심의 및 의결</li> <li>5.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및 운영 개선 관련 논의</li> </ol>																										
의결사항	<p>[안건 1]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 원안대로 승인 (단위: 억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0%;">2023결산</th> <th style="width: 20%;">2022결산</th> <th style="width: 45%;">결산 대비 증감</th> </tr> </thead> <tbody> <tr> <td>수입</td> <td>4,348</td> <td>4,220</td> <td>128</td> </tr> <tr> <td>지출</td> <td>4,348</td> <td>4,220</td> <td>128</td> </tr> </tbody> </table> <p>[안건 2] 2023학년도 기금용도 변경(안) : 원안대로 승인</p> <p>[안건 3] 2023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 원안대로 승인 (단위: 억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0%;">2023결산</th> <th style="width: 20%;">2022결산</th> <th style="width: 45%;">결산 대비 증감</th> </tr> </thead> <tbody> <tr> <td>수입</td> <td>7,633</td> <td>7,266</td> <td>367</td> </tr> <tr> <td>지출</td> <td>7,633</td> <td>7,266</td> <td>367</td> </tr> </tbody> </table> <p>[안건 4] 2024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 : 원안대로 승인 -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4학기제, 온라인학위과정) : 임상바이오헬스(4학기제) 계열 적용</p>			구분	2023결산	2022결산	결산 대비 증감	수입	4,348	4,220	128	지출	4,348	4,220	128	구분	2023결산	2022결산	결산 대비 증감	수입	7,633	7,266	367	지출	7,633	7,266	367
구분	2023결산	2022결산	결산 대비 증감																								
수입	4,348	4,220	128																								
지출	4,348	4,220	128																								
구분	2023결산	2022결산	결산 대비 증감																								
수입	7,633	7,266	367																								
지출	7,633	7,266	367																								

이 D

W 2

박

내 용	<p>■ 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의 제안으로 위원장 이하 각 위원이 돌아가며 소개 및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다.</li> <li>- 위원장이 회의 녹음 절차 및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금일 회의 녹음에 대하여 참석위원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다. 참석위원 전원이 녹음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의 녹음을 개시하다.</li> <li>- 위원장의 요청으로 예산팀장이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로 공개해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li> <li>- 예산팀장이 회의록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전원 자필 서명과 더불어 대표위원 3인의 간서명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장에게 대표위원 3인에 대한 호선을 요청하다.</li> <li>- 위원장이 위원장과 교직원위원을 대표하여 기획처장, 학생위원을 대표하여 학부 총학생회장을 회의록 간서명을 진행할 대표위원 3인으로 호선하고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li> <li>- 위원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3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의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li> </ul> <p>■ 회의내용</p> <p>1.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이 기획처장에게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li> <li>- 기획처장이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의 증감요인을 덧붙여 설명하다.</li> <li>- 위원장이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전 위원에게 질문을 요청하다.</li> <li>- 학부 총학생회장이 Ewha Frontier 10-10사업 관련 성과평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학평의원회 자문 사항과 연계하여 해당 사업비의 사용처 및 평가 내용에 있어 개선 및 평가 지점에 대해 우려를 전하며 설명을 요청하다.</li> </ul>
--------	---

3월

3월

3월

이 2

2 2

4 1

- 기획처장이 Ewha Frontier 10-10사업은 해외 우수 석학 교원과 본교 교원이 연구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학술지 논문 게재, 공개특강, 실험장비 지원을 통한 연구 결과 도출 등 성과목표의 기준은 각 사업단마다 상이함을 설명하다. Ewha Frontier 10-10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되는 교내 대규모 연구과제의 첫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평가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자문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덧붙여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3학년도 Ewha Frontier 10-10사업에 투자된 80억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투자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취지였음을 상기시키며 해당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의 투자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대학원생 장학금이며, 큰 규모의 실험장비 구입 지원 역시 대학원생 연구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학생 연구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을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2023학년도 전입 및 기부금 수입에서 병원 전입금이 크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고로 인한 경영난과 서울병원 건축 등으로 인한 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존에 받아왔던 전입금을 받지 못했으나 병원 경영의 정상화를 통해 올해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증가하였음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Ewha Frontier 10-10사업으로 인한 교내장학금 집행 증가 설명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에게 한정된 부분인지 질의하며 대규모 투자 대비 학부생들은 체감도가 낮아 우려스러움을 함께 언급하다.

- 예산팀장이 Ewha Frontier 10-10사업은 우수교원 확보를 통해 연구 성과 지표를 향상시키고, 우수 학생 확보 및 배출을 위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재정적 투자임을 설명하다. 상대적으로 수업 중심의 학부생 보다는 실험·연구가 주된 대학원생들에게 더욱 현장감 있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우리가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장도 고려해야하는 대학임을 생각했을 때 투자의 필요성이 있음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우수 교원을 초빙하여 본교의 논문 및 연구 실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용과 전임교원 문제나 인공지능대학의 교원 확충 등 학부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학교의 차원의 노력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관련 사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여러 번의 공고 진행에도 좋은 교수님을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다. 특히, AI분야는 지속되는 등록금 동결로 외부 직종과의 급여 수준에 차이로 인하여 교원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우수 교원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보수 결산액과 관련하여 인사변동에 따른 감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퇴직자의 경우 신규 임용자 대비 높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감소분임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교원 수에 대한 변동 분은 아닌지 추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교원 수는 일정 수준 유지된 상태에서 퇴직, 신규채용 등의 인사변동에 따른 일시적 감소임을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2023학년도 결산 기금인출 수입이 2023학년도 추경예산 기금인출 수입보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2022학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회적 여건과 물가인상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였으며 2023학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도 해당 시류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기금 인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긴축재정, 구성원 간의 에너지 절감 노력과 더불어 천연가스 단가가 4사분기 하락하면서 우려 대비 관리운영비 집행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 대비 적은 금액으로 마감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답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이전 1, 2차 등심위에서 조형예술관 엘리베이터는 구조적으로 설치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타 회의에서 조형예술관의 경우 지하 공사 등 기존에 투자가 이루어져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추가적인 기금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전하다. 누수 및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한 학우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물을 재건축하는 방안이나 남은 건축기금으로 지원이 어렵다면 기금 용도변경을 통해 다른 적립금을 사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관리처에서 검토한 결과 현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타 회의체에서 전달받은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하고, 학부 총학생회장이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조형예술관 B동은 수리하고, C동은 리모델링을 진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부연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해당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에서도 학생위원이 전달한 문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관리처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과 구조 양 측면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임에 현 시점에 확실한 답변이 어려움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월 등심위에서 조형예술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후 학교차원에서 추가 논의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다.

- 기획처장이 추경예산 보고 이후 재정적 손실을 막고 적자 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매진하였으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음에 미안한 마음을 표하고, 다만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 검토도 필요한 부분임을 재차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조형예술관 A, B동은 건축된 지 오래된 건물로 새로운 엘리베이터는 내진설계까지 재 진행해야함에 따라 현 건축법 상 인허가 문제, 비용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건물 재건축이 되어야 가능함을 설명하다. 재건축은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마스터플랜을 통해 진행될 부분으로 확답은 어렵지만 올해 안에 수도 시설 개선과 외벽 도색 공시 등 노후된 부분에 대한 수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임을 부연하여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수도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구체적 답변을 요청하고, 관리처장이 A,B동 전체 수도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수도시설 및 세면대 수전 개선 계획에 대해 답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재건축은 오래된 순으로 계획되는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일반적으로 노후도에 따라 진행하지만 학교의 장기적 계획에 따라 정책적, 전략적으로 변동될 수 있음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EWC와 헬렌관 재건축과 관련하여 첨단도서관으로 변경되는 이유가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지원금을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알고 있음을 언급하며 재건축 우선순위에서 노후화 고려도 있지만 정부지원 사업을 위한 전략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교 측 입장에 대해 설명을 요하다.

- 기획처장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는 건축비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써 재건축이 계획된 것은 아님을 답변하고, 기존의 일반적 서가 형태의 도서관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음을 전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헬렌관 첨단도서관 계획이나 중앙도서관 내 AI 관련 공간 조성 계획 등 첨단 공간 조성 계획이 많은데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의 의견처럼 누수 해결 등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한 건축 투자가 필요함을 언급하다. 덧붙여, 무선네트워크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용 금액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기자재 15억과 더불어 공사비 2억 원으로 총 17억원 집행되었음을 답하고, 덧붙여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원칙에 따라 2023학년도 등록금회계 잉여금을 활용하여 지난 학년도 시급성에 따라 개선한 6개의 건물 외 학내 교육관련 공간에 대해 무선네트워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처와 계획 중임을 알리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회계 잉여금과 관련하여 연구학생경비로의 집행 계획을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대부분 무선 네트워크 관련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잔액 발생 시 잉여금 처리원칙에 따라 연구학생경비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히다.

- 위원장이 추가질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간호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을 의결하다.

## 2. 2023학년도 기금용도 변경(안) 심의 및 의결

- 위원장이 2023학년도 기금용도 변경(안) 보고를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장학기금을 건축기금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2023학년도 기금용도 변경(안)에 대해 전 위원에게 질문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3학년도 결산 및 2024학년도 예산에서의 해당 장학기금의 포함 및 변동사항 반영 여부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결산 보고 자료의 단위사업 임의장학기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용도는 임의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 심의절차와 동일한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이사회 승인까지 완료된 이후 변동사항이 반영될 예정임을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문헌정보학과에서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 등 장학기금으로써 사용되었던 기금을 건축기금으로 변경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기부자의 의도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기부금은 학교에서 목적을 가지고 모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부자가 목적을 가지고 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급적 본래 목적에 따라 집행하나 학교의 의미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기부 이후 용도 변경을 요청하였을 때 학교 입장에서 기부자의 의사를 반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답하다. 단, 제도적으로 용도 변경 절차를 통해 학교가 임의적으로 쉽게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음을 덧붙여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장학기금이 건축기금으로 용도 변경된 이후 장학기금 확충 계획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대외협력팀에서 기금 모금을 위해 노력중이며, 감사하게도 장학기금은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여 이자수익 및 배당금을 통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하다. 더불어 재정을 운영하는 예산팀 입장에서는 여러 단대가 수업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EWC 건축 등을 고려했을 때 건축에 대한 재정적 투자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내 연구 교육 공간을 개선하고 조형예술대학 관련 논의도 조금 더 수월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관 리모델링 사업비 54억은 2023학년도에 집행된 금액인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기금인출액만 54억이며, 건축비로 지출 용도가 제한된 목동의학관 매각을 통한 수입을 포함하여 2023학년도 총 86억 원, 총 공사비는 300억 원 이상이였음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EWC와 헬렌관 재건축 관련 예산 비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예산팀장이 작년 설계사 선정 이후 설계용역 등의 초기 비용만 진행된 상태로 전체 비용은 관련 허가 진행 후 입찰 과정을 통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EWC와 헬렌관 재건축 모금액과 건축을 위한 기금 인출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2023학년도에는 설계안을 준비했던 기간으로 EWC와 헬렌관 재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모금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답하고, 모금이 진행되면 해당 모금액, 각 단대별 건축기금 및 여러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답하다.

- 위원장이 추가질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2023학년도 기금용도 변경(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간호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

대학교,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2023학년도 기금용도 변경(안)을 의결하다.

### 3. 2023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

- 위원장이 2023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를 제안하여 부속병원의 전략기획본부장, 서울병원 및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배석하다.

- 위원장의 요청으로 양 병원 재무팀장이 의료원 및 양 병원의 2023학년도 결산(안)에 대해 전년도 결산 대비 수입 및 지출의 증감요인을 덧붙여 설명하다.

- 위원장이 2023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에 대해 전 위원에게 질문을 요청하다.

-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기 감소액이 학교 전출금으로 확인되는데, 관련하여 재무상태표를 각 병원으로 구분했을 때, 서울병원의 부채가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하는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다.

-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학교법인 이화학당 산하에 의료원은 독립재산 개념으로 부속병원회계로 하나의 결산서가 구성되며, 내부적인 전입금 산출 기준 구분상 목동과 서울병원으로 나누어 회계처리를 진행한 부분임을 답하다.

-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본래 병원에서 이익을 창출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전입하여 사용하기 위함인데 이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병원에서 선 부담한 전출금을 향후 채우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서울병원만으로는 마이너스로 설정되었으나 의료원 차원에서는 플러스 상황임을 언급하며 5년 이내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향후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답변하다.

- 병원 관계자 전원 퇴장 후 위원장이 2023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간호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2023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을 의결하다.



4. 2024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 심의 및 의결

- 위원장이 예산팀장에게 2024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예산팀장이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 4학기제 온라인학위과정의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위원장이 2024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세부전공에서 학과로 전환되었을 때 책정액이 동일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기당 금액은 이전이 조금 더 낮으며, 그 사유와 관련하여 총 이수학점은 동일한 상황에서 5학기제로 운영되었던 교과과정이 4학기제 온라인학위과정으로 단축하여 집중 이수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음을 설명하다. 덧붙여 전년도 임상약학전공에서 임상약학과로 전환된 사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었음을 부연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세부전공에서 학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임상헬스케어학과에 설치되었던 3가지 세부전공 중 임상약학전공이 2023학년도에 전국의 약사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4학기제 온라인학위과정으로 전환 신설되었으며, 설치와 동시에 정원을 모두 채우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토대로 동 대학원에서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도 관련 수요가 많을 것을 예상하고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하였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지난 1월 인상된 대학원 등록금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 확인하고, 예산팀장이 인상된 금액 기준임을 전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학기당 수업료 외 실습비 등의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이 없는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관련 부분에 대해 담당 부서 추가 확인도 필요할 것이나 추가적 징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4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총학생회로 접수된 대학원생 민원사항을 공유하며 등록금 인상 공지 방안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관련 사항은 등심위 결정사항으로 회의 개최 10일 내 홈페이지에 회의록 게시가 이루어지며, 누구나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결정사항 및 논의사항을 포함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에 회의록 게시를 가장 큰

안내로 같음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개별 금액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통해 사전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이 게시판에 공지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예산팀장이 모든 대학에서 인상 여부를 학교 차원에서 별도 공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방안에 대해 내부적 검토가 필요함을 답변하다.

- 위원장이 추가질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2024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간호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2024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5.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및 운영 개선 논의

- 위원장이 학생위원에게 등심위 구조 및 운영 개선 관련 학생요구안 설명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심위 구조 관련 학생요구안 7개 항목에 대해 상세 설명을 진행한다. 첫 번째 등심위 회차 보장 요구는 등록금 책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 2차 회의가 1월 3일과 4일에 연이어 개최되고, 학생요구안이 안전으로써가 아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 형태로 논의되어 예산에 요구안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설명하다. 두 번째 개최 2시간 전 진행되는 사전자료 검토는 학생위원들이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도 깊은 자료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자료 검토 일정 조정을 요청하다. 이어, 기존 회의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요구안으로 위원 뿐 아니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 책정 논의에 참관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모든 이화인을 대상으로 참관과 발언권 허용을 요구하는 세 번째 요구안에 대해 설명하다. 네 번째 회의자료 공개 시스템 마련에 대해, 본 회의의 자료는 대외비적 사안을 포함하여 별도 공유 및 공지가 되지 않고,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 한정하여 제공됨에 따라 학생들 입장에서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며,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결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임을 말하다. 다음으로 학생 서기 모든 이화인 허용과 관련하여, 이전 1,2차 등심위에서도 해도 총학생회 집행부가 서기를 담당하는 사례가 있었고, 과거 투명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민주적 논의 과정을 통해 학교측과 학생측 서기가 번갈아가며 회의록을 작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음에 학생 대표자가 아니어도 서기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정 요청함을 설명하다. 여섯 번째 외부 전문가

위원 선임 시 사전 면담 진행 요구는 본교 등심위가 교직원위원 6명, 학생위원 6명, 외부 전문가 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외부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사실상 의결이 진행되고 학교 측 의견에 따라 안건이 승인되는 구조 상 외부 전문가위원의 선임이 중요하다. 지난 1월 등심위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외부 전문가 선임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학생위원이 만난 부분은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추후 운영과정에서는 학생위원과의 사전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 요청하는 부분임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개의 조건을 등심위 위원 2/3 이상 참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7학년도까지 등심위 구조 개선 선행 후 학생위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등심위를 만들고자 본 회의에 학생위원이 불참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참석 시 개의하는 조건으로 학생위원이 불참하여도 안건이 의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에 이를 개선하고자 요청하는 바임을 밝히고 발제를 마친다.

- 위원장이 첫 번째 요구안인 등심위 회차 보장과 관련된 구조 등심위 정규 개최, 12월 등심위 개최, 개최일자 결정 시 학생 의견 반영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 본래 기능에 따른 심의 안건은 등록금 책정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구조에 대한 등심위를 별도로 정규 개최하기는 어려움을 답한다. 지난 1월 등심위에서 학생위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2월 등심위 개최에 관하여 노력해볼 것으로 전달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실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유를 두고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덧붙여 12월 개최 시 학생위원 임기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논의의 지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선거에서 선출된 차기 학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학원 학생회장이 참관하는 범위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부연 설명한다. 회의 일정은 이미 학생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나 처장들도 수업 및 행정 업무로 인하여 제시될 수 있는 안에 한계가 있음에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일정안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임을 전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0년대 이전 등심위에서는 1월 말까지 진행되었던 예산 및 등록금책정 심의가 이후 1월 초에 집중되고 있으며, 타 대학에서 1월 말에서 2월까지 등심위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이사회 제출 시기로 인하여 추가 개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회차를 늘리거나 1, 2차 개최 시점에 간격을 두는 등 학생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회차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기를 요청한다.

- 기획처장이 과거 대비 예결산 심의 절차가 복잡화되면서 등심위 일정이 촉박해진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학은 이사회 일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 중임을 설명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앞서 설명한 1월 말까지 진행되는 등심위 일자에

관한 대학 사례는 사립대학임을 설명하고, 1차 회의에서 예산 의결, 2차 회의에서 등록금 책정을 의결하는 사례는 드물었음을 전하다. 덧붙여, 본교에서도 공개된 이전 회의록을 참고하였을 때 1월 말까지 이어져 회의가 진행되고 1년 동안 등심위가 4~5차 회의가 진행된 사례를 언급하다.

- 예산팀장이 올해에는 일정 조율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위원이 참석 가능한 일정으로 선정함에 따라 이전 대비 1, 2차 회의가 연이어 진행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본교에서 12월 등심위 개최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차기 대표 참관까지 고려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되기 바라며, 실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추후 차기 학생회가 구성되는 시점에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계획될 필요가 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2월 개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12월 개최 시 학생요구안이 논의될 수 있는지 1월 등심위와 동일하게 예산 심의부터 진행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책정 및 예결산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등 등심위의 본래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지난 1월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학생요구안의 공식적 형태는 학생처를 통해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0년대 이전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1월 말까지 회의가 진행되 점과 학생요구안이 1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불가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안건으로써 논의되긴 어려우나 질의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답하고,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 상정으로 논의되는 것과 각 계정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며 질의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을 말하다.

- 예산팀장이 추경예산 편성 일정과 관련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증액된 사업의 경우 이사회 승인 이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에 예산 심의가 지연될수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심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고려한 것이며, 우수학생 확보 및 등록금 납부의 편의성, 학사 일정 등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등록금 책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월 등심위를 의미있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기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 입장에서 예산 및 등록금 책정 심의에 대한 의사결정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나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등심위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학생 입장에서도 빠른 등록금 책정이 정말 좋은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12월 개회와 관련하여 학생요구안이 실용적으로 논의될 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전하다.

- 위원장이 두 번째 요구안인 사전자료 검토 일정 조정 관련 논의를 진행하다.

- 예산팀장이 원하는 시간에 대해 요청하면 열람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당일 열람에 대해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대외비성 자료에 대한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답하고, 회의 당일 내 학생위원이 요청하는 시간부터 사전열람을 진행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참관 및 발언과 관련된 세 번째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다.

- 예산팀장이 첫 번째 요구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12월 개회 시 학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학원 학생회장을 구성으로 차기대표에 한하여 참관하고 사전에 전·후임 대표 간 사전 조율 후 참석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뒤 12월 개회와 참관이 처음 진행됨을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반영해가는 방안을 제시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참관 허용은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책정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며 12월 개회에 차기 대표가 참관하는 것은 임기에 따른 참석 위원 변동에 대비하여 연속성 있는 등심위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참관 관련하여서는 학생위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합의점으로 타교 대비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전 기간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투명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여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제안한 범위에서 합의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대학평의회에서 차기 대표자가 함께 참여했던 사례가 존재하므로 12월에 차기 대표자 참관을 사유로 다른 재학생들의 참여가 제한되기보다는 등심위 사항을 더 잘 공유하기 위해 참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참관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구하다.

- 예산팀장이 대표 자격을 가진 학생위원과의 충실한 논의를 통해 등심위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과 다수의 인원이 참관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며, 학생들의 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수용하여 녹음, 상세한

회의록 작성, 학교측·학생측 서기가 교대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회의록은 정제되어 있는 문구들로 장내 분위기에 대해 온전히 담지 못하며 참관 시 얻게 되는 정보나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함을 답변하고, 본 요구안과 관련하여 2023년 3차 등심위에서는 위원장 승인 하에 참관 가능한 것으로 논의되었음을 언급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교직원 총회와 달리 위원회는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을 위촉하여 진행되는 제도임을 이해해주기 바라고, 차기 대표에 대해서는 논의의 계속성을 위해 부득이 참관을 허용하는 것일 뿐 위원회 제도의 본 취지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참관은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안전에 비추어 논의될 수 있지만 원칙으로 허용되기는 어려움을 설명하다.

- 외부 전문가 위원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8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장은 회의 안전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음을 부연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참관인의 발언과 관련하여 단순 참관이 아닌 발언이 가능한 것인지 추가 질의하다.

- 외부 전문가 위원이 의결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안전과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당사자가 배석하여 발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여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12월 개회 시 학생 대표자 참관의 취지는 논의의 연속성을 위함인데 참관인에게 발언 허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논의의 연속성 측면에서 다음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차기 학생 대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답하고, 이에 기획처장이 학생위원 간 발언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2월에 참관하는 차기 학생대표들의 발언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인지 확인을 요하고, 기획처장이 규정상의 충돌 문제와 위원으로 위촉된 학생위원과 참관인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의 권한의 충돌을 우려한 부분임을 전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미 학생 위원과 학교 위원은 의견이 다른 상황이고 회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회가 진행됨을 언급하다.

- 기획처장이 위원회 제도 상 위원으로써 논의에 참여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참관인까지 발언권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 시 학교 경영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본 논의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부분임을 설명하다. 덧붙여, 12월 개회 시 차기 학생 대표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 보다는 등심위 본래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새로 위촉되는 학생위원들과 1월에 여유를 두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조정해볼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전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 측에서는 1월 말까지 등심위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 및 등록금 납부 일정 등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전하였는데 1월에 여유를 두고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의 본 취지 상 참관인 제도가 적합하지 않음에도 학생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논의의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12월에 등심위 및 차기 대표자 참관까지 고려하여 진행해본 후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제안 하였으나 조정이 어렵다면 기존 방식으로 진행하고 12월 등심위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볼 것을 답하다.

- 위원장이 참관인의 발언이 위원들의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을 언급하고, 12월 등심위에 차기 대표자 참관까지는 논의될 수 있으나 발언권 허용은 어려울 것으로 의견을 표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2월 등심위에서 차기 학생대표자 참관까지는 합 의사향인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이 참관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합 의사향을 확인하다.

- 위원장이 네 번째 요구안인 등심위 회의자료 공개 시스템에 관하여 공개 시스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며 논의를 이어가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원들에게 배부되는 회의자료는 대외비적 자료로 외부로 공유가 불가하며,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예결산 사항은 승인이 완료된 이후 업로드 되고, 자료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한 자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배경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모든 예결산 자료가 학교 홈페이지 및 대학알리미에 공개되고 있으나 회계적 정보에 대한 해석은 글로써는 쉽게 설명되기 어려우므로 필요하다면 협의체 등을 통해 구두로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다.

8기  
7기  
1기

이 2  
22  
박

- 학부 총학생회장이 협의체의 경우 참석자가 학생위원 수준으로 제한되므로 모든 학생이 보기에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답변하고, 보고 자료의 첫 페이지에 작성된 총괄 수준에서 공개 가능한 범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되기를 요청하는 바임을 전하고, 예산팀장이 이에 대해 검토해볼 것으로 답변하다.

- 위원장이 서기 자격에 대한 요구안으로 논의를 이어가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전까지 총학생회 집행부까지 서기를 맡았던 사례가 있음에도 이번 3차 등심위 안내 시 단과대학 대표로 서기의 자격 조건이 제한되어 안내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하다.

- 예산팀장이 등심위 회의에는 각 구성원을 대표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회의체임에 서기 역시 대표자 중 선정되어야 하지만 지난 1차 회의에서는 학생측 서기가 준비되지 않았고 바로 다음 날 2차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서기를 담당할 단과대학 대표자를 섭외가 어려웠을 것으로 파악하고 집행부까지 허용했으며 3차 회의에서는 사전에 서기 준비가 가능하도록 안내하면서 자격 조건을 상기시킨 부분임을 정정하여 알리다. 덧붙여, 요약 수준이 아닌 속기록 수준의 상세한 회의록을 작성하기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는 대표자 중 1인이 담당하는 것이 서기 역할을 수행하기에 더 수월할 것임을 부연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0년 등심위에서도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서기를 담당할 사례가 있으며 대표자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지 않았음을 언급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서기를 운영하는 대학은 드물며, 학생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회의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기에 단과대학 대표자가 더 적합할 것으로 의견을 전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측에서도 가급적 단과대학 대표자로 선정하고자 하나 불가능한 경우 집행부 등의 학생에게 요청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하고 규정 상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회의록 작성은 직제 상 예산팀에서 담당할 직무 내용이며, 원칙적으로는 학생 대표자 역시 서기를 담당할 수 없으나 학생요구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학생 측 서기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 있어 예외적 상황에서 대표학생 외 학생이 서기를 담당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이 서기가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논할 수 없음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서기 운영은 회의장에서 논의되는 발언들이 회의록에 작성될 때 학생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부분임을 고려하여, 학생 측에서도 가급적 단과대학 대표, 학과 대표까지 요청하되



불가할 경우 집행부에서 서기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기를 바라며, 서기 자격 조건을 명시적으로 학생 대표자로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조정을 제안하다.

- 위원장이 학생 서기는 학생위원 1인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임에 모든 이화인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을 언급하고,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 6인 중 1인이 아닌 학생측 서기가 따로 있었음을 전하다.

- 이에, 예산팀장이 '학생위원 1인'을 '학생위원의 자격을 갖춘 1인'으로 부연 설명하다.

- 위원장이 학생 대표자나 모든 학생이 서기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인지 요구안의 서기 자격 범위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대표자가 아닌 서기가 회의장에 참석하는 것을 참관의 형식으로써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학생 대표자에게 요청하고 어려운 경우 총학생회 집행부까지는 감안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조율하면 어떨지 답하다.

- 예산팀장이 총학생회 집행부가 학생 대표로써 위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지 질의하다. 학생서기를 운영하는 근본적 이유는 서기가 회의장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왜곡됨 없이 충실히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회의록 초안 작성 이후 모든 위원에게 발송하고 수정 및 확인 절차에 따라 최종본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면 대표성을 갖춘 서기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본 실무를 담당하는 학교측 서기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서기의 자격 여부에 대해 논의를 더 깊이 지속해야할 부분인지 확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수정 및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학생위원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직책여부에 대해 깊이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면 자격 조건을 굳이 명시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됨을 전하다.

- 위원장이 서기 관련사항은 현재 회의록 작성 절차 상 모든 위원의 의견이 충실히 작성될 수 있음에 자격 조건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는 부분이 소모적 논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학생 대표자로 서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예산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조정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0년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서기를 담당했던 사례가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등심위를 만들고자 합의해온 사항에 대해 번복하는 것으로 등심위 서기가 어떤 학생들로 구성되었는지 확인 후 재논의할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예외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이화인이 서기를 담당

할 수 있도록 요구안이 전달되어 당황한 마음도 있었음을 전하고, 학생위원의 의견을 따라 이전 회의에 대한 검토 후 추후 다시 논의해보는 조정안에 대해 합의하다.

- 위원장이 외부 전문가 위원 변경 시 사전면담 요청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묻다.

- 예산팀장이 지난 1차 등심위 이후 학생위원에게 안내한 바와 같이 지난 외부 전문가 위원 변경 위촉 시 외부위원과 학생위원이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모실 수 있는 외부위원 추천자에 대해 학교와 학생 대표 위원간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위촉하고 있지 않음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간담회 절차가 선정 과정에 있었는지 선정 이후 진행되었는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모교 출신 4대 회계법인 임원급으로 추천을 요청하고 참여가 가능하신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학생 대표 위원과의 간담회에서 동의를 거친 이후 최종 위촉 품의가 완료되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외부 전문가 위원이 추천 되는 과정에서 희망하지는 않은 항상 한 본인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외부 전문가 위원의 변경 위촉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사례가 많지 않음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추후에도 외부 전문가 위원 변경 위촉 전 학생위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위원장이 기존과 같이 학생위원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사항을 정리하여 답하다.

- 위원장이 등심위 위원 2/3이상 출석 시 개최하는 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외부 전문가 위원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7항으로 개개의 조건이 규정화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의견을 전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규정을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인지 질의하고, 외부 전문가 위원이 해당 규정은 대학 내에서 정한 내규가 아닌 법적 규정으로 대학에서 개정은 어려움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관련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요구안은 등심위 의결 구조가 학생위원측과 학교위원측으로 나뉘어 학생들이 반대하거나, 과거 학생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파행되어도 의결이 진행되어 가결되는 구조 개선을 위한 취지였음을 알리다.

- 위원장이 등심위 구조 및 운영 관련 학생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지 묻다.

- 기획처장이 12월 등심위 개회 시 차기 학생대표자의 참관에 관련하여서는 관련 상위법 및 내규에 근거하여 추진할 것임에 관련 합의사항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언급하다.

• 합의사항

- 회의 당일 내 학생위원이 요청하는 시간부터 사전열람을 진행
- 12월 등심위 개회 시, 차기 학생대표자(학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학원 학생회장)에 한하여 참관 허용. 기타사항은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
- 외부 전문가 위원 변경 위촉 시, 현행과 같이 학생위원과의 면담을 진행
- 등심위 개의 조건은 법적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 수 참석으로 유지

• 추후 논의사항

- 12월 등심위 개회를 위해 노력하고, 시도 후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 등심위 회의 자료 공개 시스템 마련에 대해 추후 검토
- 서기 자격 조건은 이전 사례 검토 후 재논의

■ 폐회

- 위원장이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정기  
회의  
일임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4년 4월 22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명휘	이명휘	위 원	백은미	백은미
	위 원	권하은	권하은	위 원	왕혜정	왕혜정
	위 원	도재형	도재형	위 원	윤정원	윤정원
	위 원	박서림	박서림	위 원	이주연	이주연
	위 원	박예림	박예림	위 원	전현주	전현주
위 원	박지혜	박지혜	위 원	정덕유	정덕유	
위 원	반지민	반지민				
작성 자	예산팀 지혜 민지민					